

KIA, 스토브리그 이정표는 '덧셈' 아닌 '재설계'

2026시즌 준비 출발선... '더하기'보다 '조정'

선수 활용 방향·방식 최우선 고려, 큰 틀의 시스템 재정비
불펜 구성·포지션 운영 등 고질적인 문제 해결은 과제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2026 시즌 준비는 '더하지 않는 선 택'에서 출발한다. 내부 FA와 외국인 선수 구성을 통해 핵심 자원의 윤곽은 드러났지만, 기존 전력과 비교하기엔 아직 이르다.

실제로 KIA의 비시즌 일정은 큰 변화를 서두르기보다 재설계 국면에 놓여 있다. 추가 영입보다는 내부 상황을 정돈하고, 전체 틀을 맞춰가는 단계를 거쳐갔다. 남은 내부 FA 협상 테이블 역시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며, 구단의 일정 뒤로 묻힌 형국이다.

이 같은 행보는 KIA가 전력 구성을 선수 활용의 방향과 방식에 먼저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선수 확정 이후에도 포지션 운영과 불펜 구성, 선수 기용 방식 등 시즌 중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시즌 내내 불안 요소로 남았던 불펜 운영과 일부 포지션의 고정 여부는 단순한 보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투종 투수들의 부상과 부진이 겹치며 선발 마운드 역시 구단의 주요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

이는 특정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운영 방식과 맞물린 사안이다.

KIA는 이번 겨울 모든 선택을 한 번에 마무리하기보다, 우선순위를 세워 결정을 달리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비시즌 과정에서 드러난 구단의 '선택과 집중'에는 그 방향성이 비교적 또렷하게 담겨 있다. 불안 요소로 지적됐던 마운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이에 맞춰 공격과 수비에서도 구조 재편과 역할 분담을 병행했다.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보강'이 아닌 운용 기준의 재설정이었다.

스토브리그의 큰 흐름이 정리된 만큼, 이제 시즌은 자연스럽게 새 시즌 준비 과정으로 옮겨간다.

외형적 변화보다 운영의 정교함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다. 지난 시즌 드러난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사안이 아닌 만큼, KIA

에게 필요한 것은 추가 선택이 아니라 이미 세운 방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실행하느냐다.

이번 오프시즌 동안 KIA의 결정은 '더하기'보다 '조정'에 가까웠다.

포지션 구상과 불펜 관리, 선수 기용의 일관성은 스프링캠프와 시즌 초반을 통해 차근차근 점검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이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느냐다. 조용했던 준비 국면은 지나갔고, 새 시즌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주홍철 기자



태국 후아힌으로 동계 전지훈련을 떠나는 광주FC 선수단이 5일 출국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게인 2020'...이민성호, 스타트

U-23 아시안컵, 7월 이란·10일 레바논·13일 우즈베크와 조별리그 C조 대결

"아시안컵은 2026년 한국 축구의 첫 시작이라 좋은 출발을 해서 앞으로 좋은 성과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26 아시아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U-23) 아시안컵에 나서는 '이민성호' 한국 U-23 대표팀이 6년 만의 왕좌 탈환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다.

이민성 감독이 지휘하는 U-23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7일 오후 8시30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알사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이란과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2026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에서 이란을 시작으로 10일 오후 8시30분 레바논(알사바브 클럽 스타디움), 13일 오후 8시30분 우즈베키스탄(프린스 파이살 빈 파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과 차례로 만난다.

이번 대회에는 16개 팀이 출전해 4개 팀씩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1, 2위 팀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이민성호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한국은 2014년부터 2년 주기로 치러지는 AFC U-23 아시안컵에서 1차례 우승(2020년), 1차례 준우승(2016년), 두 차례 4위(2014, 2018년), 두 차례 8강(2022, 2024년)의 성적을 냈다.

2020년 태국 대회에서 김학범 감독의 지휘 아래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던 태극전사들은 이



한국 U-23 축구대표팀을 지휘하는 이민성 감독

〈대한축구협회 제공〉

후 이어진 두 차례 대회에서 모두 8강의 벽을 넘어서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에 나서는 '이민성호'의 목표는 두 대회 연속 8강의 아쉬움을 넘어 2020년 대회 우승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27일 지휘봉을 잡은 이민성 감독은 부임 직후 호주와의 국내 2연전을 치르며 대회 준비를 시작했고 지난해 9월 이번 대회 예선에서 3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로 본선행 티켓을 차지했다.

이민성호는 작년 10월 사우디 전지훈련을 통해 일찌감치 현지 적응에 나섰고, 11월 중국에서 열린 판다컵에서 2승 1패로 우승하며 경쟁력을 쌓았다.

/연합뉴스

'새 출발' 이정규호, 태국서 본격 담금질

26일까지 1차 동계 전지훈련... 실전감각·조직력 극대화



프로축구 광주FC가 본격적인 2026시즌 준비에 돌입한다.

광주는 5일 1차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태국 후아힌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다.

1차 훈련은 26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경남 남해로 이동해 다음달 15일까지 2차 전지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정규 감독이 지난 4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선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믿는다"고 강조한 만큼 선수 개개인이 새로운 훈련 시스템과 원칙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이번 전지훈련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정규 감독은 "광주가 그동안 쌓아온 시스템을 잘 유지하면서, 팀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지훈련에서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베테랑' 주세종과 3년 더 동행

경남서 뛰던 '만능 수비수' 박원재 영입... 6월부터 출전 가능

프로축구 광주FC가 '베테랑 MF' 주세종(35)과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는 국가대표 출신으로 팀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미드필더 주세종과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2028년까지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세종은 2012년 부산 아이파크에서 프로 데뷔 후 일찍이 폭넓은 활동량, 뛰어난 패싱력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FC서울, 아산 무궁화, 대전 하나시티즌 등을 두루 거치며 K리그 1, 2를 섭렵했고 2021년엔 감바 오사카 소속으로 J리그 경력까지 쌓았다.

지난해 광주에 입단한 주세종은 경기 조율

능력과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광주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주세종의 잔류가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팀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는 제주 SK FC, 경남 FC 등에서 활약한 바 있는 풀백 박원재(31)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원재는 주로 오른쪽 풀백을 소화하지만 왼쪽에서도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전천후 수비수다.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정확한 크로스를 바탕으로 측면 공격 옵션을 확장할 수 있으



주세종

박원재

며, 윙어 및 미드필더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 전개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박원재는 현재 등록 금지 징계에 따라 올해 여름 이적시장이 열리는 6월부터 선수 등록이 가능해 출전할 수 있다. /박희중 기자

신진서·김은지, 새해에도 남녀 바둑 랭킹 1위

지난해 한국 바둑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던 신진서·김은지 9단이 새해에도 남녀 랭킹 1위를 지켰다.

신진서는 5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1월 랭킹에서 1만413점을 획득해 랭킹 2위 박정환(9천848점) 9단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전체 랭킹 1위를 차수했다.

신진서는 지난달 세계기선전 8강에서 중국의 신예 강자 왕싱하오 9단에게 아쉽게 패했지만 5승 1패를 거두며 2020년 1월부터 73개월 연

속 랭킹 1위를 질주했다.

박정환·변상일·신민준 9단이 변동 없이 2·4위를 지켰고, 안성준 9단은 1계단 상승한 5위가 됐다.

김은지는 2개월 연속 여자 1위가 됐다.

지난달 13승 3패를 기록하며 오청원·난설·현배·하림배 3개의 타이틀을 쓸어 담은 김은지는 여자 바둑에서 독주 챔피언을 차렸다.

김은자는 전체 랭킹도 4계단 뛰어올라 개인 최고인 22위가 됐다. /연합뉴스